

광주지역 학교 입시상담 “너무 부실해”

학부모 만족도 20%에 그쳐...전국 최하위 수준

67% 사설 컨설팅업체 이용...비용 부담 떠안아

광주지역 일선 학교에서 이뤄지는 입시상담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입시상담을 사설컨설팅업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학부모의 교내 입시상담 만족도는 20%에 그쳤다. 이는 전국 평균 46%에 크게 못 미치고, 16개 시·도 가운데 울산(18%), 강원(16%) 다음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교내 입시상담에 만족하지 못하면 서 광주 학부모들은 사설컨설팅업체

를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시상담을 사설컨설팅업체에 의존한다는 응답이 90%로 강원(92%)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다. 전국 평균은 62% 수준이다.

특히 ‘학교에서 입시상담을 0~2회만 실시해 입시 상담 횟수가 부족하다’는 답변은 20%에 불과해 상담 횟수보다는 상담의 질적 내용에 불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의 교내 입시상담 만족도는 50%로, 전국 시·도 가운데 6번째로 비교적 만족도가 좋은 편이었다. 하

지만 사설 컨설팅을 이용한다는 답변은 67%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았다.

김희정 의원은 “사설 컨설팅 이용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진로교사의 능력향상과 입시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김희정 의원이 지난 9월 말 민간교육전문기관에 의뢰해 고3 학부모 1056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화설문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입시설명회를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리는 등 진학지도도 강화하고 있다.

고3 담임과 일선학교 진학부장의 연수를 늘리고 입학사정관 전형·논술전형 설명회, 수능 분석 설명회, 수시·정시 입시설명회, 진로·진학 캠프 등을 통해 입시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 전직 입학사정관을 진학상담사로 채용해 방문 상담과 온라인·전화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47분 해질 17시 46분 달돋이 22시 36분 달질 12시 00분

기온 폭
대체로 맑은 가운데 쌀쌀한 날씨 이어지겠다.

광주	맑음	7/17C
목포	맑음	9/16C
여수	맑음	13/19C
나주	맑음	6/18C
완도	맑음	12/19C
구례	맑음	6/18C
강진	맑음	10/18C
해남	맑음	10/18C
장흥	맑음	10/19C
순천	맑음	5/17C
영광	맑음	8/16C
진도	맑음	12/16C
전주	맑음	7/18C
군산	맑음	7/16C
남원	맑음	5/17C
혁신도	맑음	12/15C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주의 보통 보통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6(토)	27(일)	28(월)	29(화)	30(수)	31(목)
날씨						
최저/최고	7/17	7/18	6/19	8/20	9/20	9/19

교통사고 발생 1위 지역 광주 광천사거리 순천 조례사거리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어디일까?

광주시 서구 광천동 광천사거리와 순천시 조례동 조례사거리가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 지역으로 꼽혔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에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천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2009년 교통사고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던 서구 유촌동 계수사거리도 40건의 교통사고가 나 ‘교통사고 발생 우범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또 ▲광산구 운남동 어등산약국 사거리(35건) ▲서구 유촌동 버들주공아파트 사거리(34건) ▲동구 호남동 중앙대교 사거리(30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이들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만 186건에 달했다.

전남에서는 순천 조례사거리(24건)에 이어 목포시 옥암동 해양항만청 사거리(22건), 순천시 조례동 현대아파트 사거리(22건), 목포시 상동 해인주유소 오거리(20건), 여수시 여서동 88로터리(20건) 등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박정욱기자 halo@



24일 전국 최초로 광주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특수교육 진로직업박람회’에서 특수학교 학생들이 진로 체험을 하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박대통령 국민앞에 사과해야”

전주교 광주대교구 성명...남재준 국정원장 사퇴 촉구도

한국 전주교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 및 국정원 개혁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24일 ‘국정원 사태의 올바른 해결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미사’를 봉헌한 뒤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 사과 및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조영권 서울 중앙지검장 사퇴 등을 촉구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 동부교육지원청, 장애 학생 진로·취업 돕기

전국 첫 ‘특수교육 진로직업교육 박람회’

장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을 돕는 ‘특수교육 진로직업 박람회’가 전국 최초로 광주에서 열렸다.

광주 동부교육지원청은 24일 지원청에서 장애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진로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장애학생의 취업을 높이기 위해 ‘제1회 특수교육 진로직업교육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사를 비롯해 선광학교, 씨든장애인직업재활센터, 엠마우스 일터, (사)모두사랑나눔회, (주)인아 등 15개 단체·기업 등이 참여했다.

심희희 동부교육장은 “장애인에게 최고 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라며 “이번 박람회가 장애인 복지정책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마을신문·잡지’ 인기 많아요

이웃간 소통 이어주고 화합 다지는 디딤돌 역할 동구 ‘통통마을신문’ 등 잇달 발행·예산 고충도

“우리 동네 뒷밭에서 가꾼 삼추가 맛있다고 신문에 났어요.”

최근 광주에서 이른바 동네 미디어인 ‘마을신문·잡지’가 주민 간 소통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24일 현재 광주에서 발행 중인 동네 미디어는 대략 10개로 ▲동구 ‘통통마을신문’(계림동) ▲남구 ‘함꾸네’(노대동)·‘월산 4동에 살다’(월산동)·‘양림소식’(양림동)·‘난지실 마을에 동지를 틀다’(백운1동) ▲북구 ‘일곡 메아리’(일곡동) 등이다.

‘함꾸네’(함계 꿈꾸는 동네)는 동네 소식을 전하는 대표적 마을신문으로 사랑받고 있다. 동네주민 8명이 지난 2011년 5월 첫 발행한 ‘함꾸네’는 마을역사·유래·동네 주민 이야기·행사 등 동네 소식을 담아 두 달에 한번 꼴로 발행(5000부)되고 있다.

이달 초 첫 선을 보인 ‘난지실 마을에 동지를 틀다’는 발행되자마자 백운휴먼시아 3단지 입주민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첫 호엔 동네 어른식 합동 잔치를 비롯, 동네 세탁소 아저씨 이야기가 친근함을 입혀 기사로 다뤄졌다.

이 신문은 동·호별로 가로막힌 콘크리트 벽을 허물어주는 입주민 간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게 주민들 평가다.

동네 미디어가 주민 간 소통을 이어주고 화합을 다지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대다수가 예산 부족으로 발행부수·횟수 등을 감소하고 있는 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다.

/김용희기자 kimyh@



제12회 별교 꼬막축제 2013. 10. 25(금) ~ 10. 27(일)
별교읍천변 / 대포리 갯벌체험장

별교 꼬막
자연이 살아 숨쉬는 천상갯벌 꼬막

꼬막 판매장		꼬막 요리 맛집	
13번수산 T.061)857-0013	공한정식 T.061)857-7028	고려꼬막한정식 T.061)857-3328	
꼬막수산 T.061)857-3232	여가꼬막식당 T.061)858-8580	꼬막거리식당 T.061)858-1325	
진석수산 T.061)857-4444	수라상 꼬막 맛집 T.061)858-0505	수목회관 T.061)857-3456	
5번수산 T.061)857-0005	별교 태백산맥 꼬막맛집 T.061)858-6100	제일화관(원조) T.061)857-1672	
	홍교꼬막회관 T.061)857-1035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